

# 화폭속에서 다시 살아난 전북의 산

도립미술관 8월26일까지 ‘산들바람전’ 전시…39명 작가 호남 삼신산 등 독특한 화풍 표현

전북을 미술문화로 끌어내는 세 번째 전시가 마련된다. 전북도립미술관이 2010년 ‘흐르는 강물처럼·전북의 강이 품은 역사문화 상상’, 2011년 ‘전북을 만나다·들과 갯벌 그리고 사람들’에 이어 올해 ‘산들바람’전을 개최하는 것. 지난 20일 개막한 전시는 8월26일까지 전북도립미술관 전관에서 계속된다.

‘산들바람’전은 전북의 ‘산’이 주제이다. ‘산’이라는 자연의 한 표정을 미술은 어떻게 사유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그 안에 녹아 있는 전북사람들의 삶의 역사와 뿌리 내린 문화를 통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미래를 제시하려는 시도다.

이번 전시에서는 전북의 역사학적, 인문학적 흐름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회문산, 호남의 삼신산(방장산·두송산·내변산), 지리산을 탐방하며, 우리지역 고유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담아냈다.

참여 작가는 강정이, 김문철, 김선애, 김성서, 김원순, 김이재, 김혜원, 노시은, 박계성, 박부임, 박재연, 박정진, 송관엽, 송수미, 양만호, 엄영섭, 유경희, 유봉희, 이강원, 이병로, 이상조, 이재승, 이정웅, 이창규, 이호철, 장호, 장영애, 장지성, 전병관, 정문배, 정유란, 조현, 조병철, 진창윤, 차두아, 최용진, 황찬연 등 총 39명.

작가들은 산에서 얻은 영감을 저마다의 색깔과 작품으로 풀어냈다.

한국화의 경우 김문철은 지리산과 내장산을, 송관엽은 지리산과 두송산을, 이창규와 장지성은 내변산을, 정문배는 지리산을, 조병철은 내변산을, 그리고 이재승과 차두아의 산까지, 전통적 조형



송관엽 작 '오르는 두송산'

방법을 원용해 지역의 산을 각자의 어법으로 형상화했다. 이들 작품을 통해 전북지역의 산을, 그 산의 위용과 기세를 음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양화는 박계성, 양만호, 이상조, 이정웅, 이창규, 장호, 정유란, 조현 등이 각자 다양한 입장에서 지역의 산을 화면에 담았다. 어떤 화가는 산에서 부는 산

들바람을 구체적으로 표현했는가 하면, 아예 모악산의 봄바람을 화면에 담기도 했다. 회화 작업은 비교적 다양한 접근 방식으로 지역의 산을 형상화하고자 했다. 조각, 공예 분야는 장르 특성상 지역의 산을 간접 표현법으로 구사하고 있으며, 사진은 현장을 구체적으로 재현해 생동감을 전달하고 있다.

미술관 관계자는 “대자연에 담아낸 이번 전시는 전북의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예술의 향연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재해석하고, 미술문화로 풀어내려는 노력을 통해 전북 미술을 한단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지혜 기자 kjh@sjnnews.com



## 커피에 취하고 미술에 빠지고

갤러리 카페 ‘허브허브’ 첫번째 전시 정이순 초대전

카페에서 미술작품을 전시하는 갤러리 카페는 어느덧 익숙해진 현상이다. 이로 인해 커피숍을 찾는 방문객들은 굳이 미술관이나 갤러리에 가는 수고를 덜면서 문화적 향유는 더욱 누릴 수 있게 됐다. 여기다 커피를 마시면서 해외의 어려운 아이들까지 도울 수 있는 일석삼조의 역할을 하는 카페가 있어서 눈길을 끈다.

전주시 효자동 예벗교회 맞은편에 위치한 갤러리 카페 ‘허브허브’(대표 문상희·사진). 이 곳은 개업 2주년을 맞아 지난 5월 갤러리 카페로 탈바꿈하고, 첫 번째 전시로 중견작가 정이순 초대전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나라 들꽃을 펜으로 그려낸 다양한 작품과 누드드로잉 등 크고 작은 작품 100여 점을 한 공간에서 만나볼 수 있다. 이 곳에 들르면 미술품 감상뿐만 아니라 좋은 일도 하게 된다. 커피를 마시면 한 잔에 300원씩 굿네이버스 후원금으로 적립이 되는 것. 한달 평균 400~500여 잔의 커피를 팔아 13만~15만원 가량을 후원하고 있다.

문 대표는 “돈을 많이 번 뒤에 좋은 일을 하겠다는 것은 언제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더 어려운 것 같았다”며 “주문대 앞에 공개적으로 후원 사실을 알리고, 손님들의 약속이니 꼭 지키고 있다”고 말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은 우크렐레(하와이 원주민의 기타와 비슷한 4현 악기) 수업도 진행된다. 문 대표를 비롯해 6명이 이 우크렐레 수업에 참여하고 있

며,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 작게나마 지역의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해내려고 노력하고 있다.

주류가 되는 카페로서의 기능도 제대로 수행하고 있다. 이 곳에서는 유기농커피만을 취급하며, 메뉴 개발을 위해 문 대표가 직접 일본, 필리핀 등에 가서 좋은 원료를 찾거나 레시피를 배워오기도 했다. 가장 인기 있는 메뉴는 망고 빙수와 블루베리 주스. 망고빙수는 일본에서 유명하다는 곳을 방문 먹어보고 비법을 찾았으며, 블루베리 주스는 직접 개발한 메뉴다.

대학에서 디자인을 전공하고, 취미 활동으로 유화를 그리고 있다는 문 대표는 “작품활동도 열심히 해서 이 공간에서 개인전을 열고 싶다”고 말했다.

/김지혜 기자

## 전주어진박물관 상반기 23만여명 발길

태조어진을 소장하고 있는 전주어진박물관(관장 이동희) 관람객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어진박물관에 따르면 지난 1~6월 상반기 동안 어진박물관을 다녀간 인원은 총 23만여 명으로 지난해 7만4,000여 명에 비해 큰 폭으로 늘었다.

지난해 6월 1만4,000여 명이 방문한 것에 비해 경기전 관람 유료화가 실시된 6월에는 3만8,000여 명이 다녀가 유료화 이후에도 관람객의 발길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관람객 증가는 전주한옥마을이 관광객 400만 시대를 맞는 등 전국적인 명소로 떠오른 것과 함께 국내 유일

의 어진 전문박물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지난 6월 태조어진이 국보 317호로 승격, 가치가 높아지면서 관심도 역시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어진박물관이 특성화된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 진행을 통해 전주시민뿐만 아니라 전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와 즐거움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물로 볼 수 있다.

실제 경기전 서편 부속건물을 체험공간으로 활용해 수문장배치, 수문장체험, 왕실의상체험, 탁본체험, 분향례체험, 가마체험 등 10개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5~6월 주말 동안 2,800여 명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김지혜 기자

## ‘사랑방 춤’ 전통문화관 경업당 무대

우리 춤을 바로 알고, 춤에 대한 이해를 도와주는 공연이 마련돼 눈길을 끈다.

전주전통문화관과 호남춤연구회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사랑방 춤’이 7월부터 9월까지 매월 넷째주 화요일 전통문화관 경업당 무대에 올려진다.

한옥의 사랑방 무대에서 펼쳐지는 이 공연은 한국무용과 이야기, 다도가 함께하는 문화적 소통의 장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지금까지의 공연이 눈으로 보고 즐기는 공연이었다면 사랑방 춤은 화려한 춤사위를 눈으로 보고, 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전문해설과 공연자의 춤 세계관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도 마련돼 특별함을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랑방 춤 첫 번째 무대는 오는 24일 오후 8시 ‘금아 이길주의 춤 - 경업당을 채색하다’로 활짝 연다.

호남춤연구회 김명신의 ‘부채입춤’을 시작으로 호남지방 지방춤의 성향을 잘 간직한 ‘호남산조무’가 이어진다. 또 입소리에 맞추어 장단과 장단을 넘나드는 발디딤과 다양한 춤가락들이 한과 흥의 이미지를 복합적으로 표현한 ‘금아지무’, 무속에 기원을 두고 삶과 액을 풀기 위해 추던 ‘살풀이춤’까지 경업당을 전통 춤사위로 물들일 예정이다.

/김지혜 기자

## 찾아가는 여성일자리 센터 운영

전북여성성교육문화센터(센터장 김보금)가 결혼, 출산, 육아 등으로 사회로부터 단절된 여성들의 취업 확대를 위해 찾아가는 여성일자리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찾아가는 여성일자리센터는 도내 14개 시·군 구직 여성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찾아가 지역 내 여성친화 및 유망기업 현장방문을 통한 구인·구직 미스매칭,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진입을 도

와주는 사업이다. 또한 구인기업 현장방문을 위한 버스이동 시 직업상담사와 취업설계사가 함께 탑승해 개인의 직업적성 진단서비스, 직업교육 프로그램안내, 취업상담과 개인별취업준비컨설팅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지난 5월 진안 부귀농협미아산 김치와 매일제과 기업 현장 방문으로 시작한 이번 사업은 7월에는 19일 무주를 방문한 것을 비롯해 24일 고창, 26일 부안, 27일 완주군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김지혜 기자

www.tbroad.com

대한민국 케이블TV No.1 티브로드

생생한 금메달의 감동은 티브로드 디지털로

티브로드는 태극전사의 승리를 기원합니다

퀴즈 풀고! 선물 받고! 런던을 응원하자!

홈페이지 퀴즈 정답을 맞추시는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시원한 아이스 커피**를 드립니다.

|       |                                  |
|-------|----------------------------------|
| 이벤트대상 | 태극전사를 응원하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네(총 2,012명) |
| 응모기간  | 7월 11일(수) - 8월 11일(토)            |
| 이벤트발표 | 8월 27일(월) *홈페이지상 고지              |

퀴즈유형

Q1. 신사의 나라, 영국의 수도는?

Q2. 대한민국 케이블TV No.1 티브로드의 서비스는?

해택

**스타벅스 아이스커피 5천원 상당 모바일권**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www.tbroad.com](http://www.tbroad.com)를 참조하세요.  
\* 본 이미지는 실제 경품과 다를 수 있습니다.

세계상을 여는 창

t-broad 전주방송

070-8177-0008